

# 다이어트 프로그램에서 표출된 몸에 대한 담론

함 현

청운대학교 방송영상학과

e-mail: poparts@chungwoon.ac.kr

## Discourse on the Body Expressed in a Diet Program

Hyun Hahm

Dept.of Broadcasting & Digital Media, Chungwoon University

### 요약

본 논문은 우리사회에서 끊임없이 부각되고 있는 몸에 대한 담론에 대한 현상을 살펴보는 데 목적을 갖고 있다. 특히 미디어에서 표출되고 몸에 대한 신드롬은 지속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다이어트를 통한 몸짱 만들기 프로그램은 다양한 형식과 구성으로 제작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미디어를 통해서 형성되고 있는 몸에 대한 신드롬 형성 용인과 가치기준의 판단이 수용자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문화적 현상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 1. 서론

인간의 신체는 사회성을 갖고 있다. 특히 얼굴은 인간이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중심적인 장소이다. 얼굴은 한 개인을 나타내는 고상한 부위이며, 시선의 장소이다. 따라서 얼굴은 사회적 기능들-상호 소통적, 상호 주체적, 표현적, 언어적 기능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장이다[1]

그러나 우리사회는 인간 신체의 담론이 주로 몸에 대해 초점이 맞추어 지고 있다. 특히, 남성의 6팩과 같은 복근과 근육질의 몸매, 여성의 정형화된 곡선의 몸매에 대한 모습은 미디어를 통해서 항상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에 따른 수용자들의 몸매 가꾸기의 열풍은 세대를 막론하고 일반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미디어에서 표출되는 몸에 대한 담론은 동일시를 부추기며, 때로는 몸짱에 대한 신화적 이야기 구조의 성격을 띠기도 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몸에 대한 담론을 고찰하고, 미디어에서 표출되고 있는 몸 이미지에 대한 시각과 시각성에 대한 현상을 고찰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회문화적 현상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 2. 몸에 대한 담론

인간 신체에 대한 표상은 끊임없는 화두의 대상이다. 또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자기 신체에 대한 표상은

물론 타자의 신체의 모습을 통해서 다양한 관계가 형성되기도 한다. 사회적 관점에서 인간 신체의 권력의 관계를 형성하고, 문화적 관점에서도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어 우리의 의식을 지배하기도 한다.

특히, 최근에 미디어에서 표출되고 있는 몸에 대한 담론의 형성과정을 살펴보면, 일반인들의 동일시를 부추기는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간의 신체는 영원성을 갖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타자의 신체 이미지의 표상을 통해 각자의 미메시스를 부추기는 현상으로 발전되고 있다. 더구나, 젊은 세대들에게 있어서 몸 가꾸기의 열풍을 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사회에서 인간 신체에 대한 견해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인식의 이항대립적인 상황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 변화된 시대의 특징을 살펴보더라도, 날씬한 몸매, 뚱뚱한 몸매에 대한 인식은 한 개인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결국, 개인적 욕망에서 비롯된 외모지상주의의 긍정적·부정적 담론에 대한 형성은 나 자신으로부터 타자와의 닮음을 시도하는 현상은 고정관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3. 미디어와 몸에 대한 담론 형성

우리 사회에서 몸에 대한 담론의 시발점은 미디어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싶다.

특히 대중매체에서 활용하고 있는 인물의 도상적 이미지의 활용은 수용자에게 절대적인 믿음의 상징체계를 구현하고 있다. 또한 성과 젠더와 관련된 남성성과 여성성의 신체를 하나의 도구로 활용하는 광고사진[2]을 살펴볼 수 있다.

광고에서 활용하고 있는 인간 신체의 이미지는 과거 유순한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남성성을 활용한 기계적 메커니즘의 표현과 여성성을 활용한 곡선의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정형화된 신체의 표상은 시각망막중심에 길들여진 수용자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신체 표상의 정형화된 시각적 구현의 방식은 우리사회의 기준을 성립하고 있다. 미디어 속 타자의 신체 이미지에서 표상되는 기준의 외형적 특징은 일반인들에게 가치기준의 판단을 정상과 비정상의 등가를 성립시키고 있다.

결국, 미디어에서 표출되고 있는 몸에 대한 담론의 형성 과정에서 영웅으로서의 몸에 대한 윤태일의 연구결과에서도 외모를 중시하는 날씬한 몸과 뚱뚱한 몸에 대한 담론의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3]

#### 4. 다이어트 프로그램의 구성형식과 특성

미디어에서 부추기고 있는 몸에 대한 담론의 가속화 현상 속에서 다이어트 프로그램은 지속적인 관심의 대상이다. 최근 케이블TV에서 제작되고 있는 다이어트 프로그램의 구성형식과 특성은 커다란 변화를 시도하였다.

과거 교본과도 같은 다이어트 프로그램의 정형화된 구성형식에 비해, 수용자가 직접 참여 하는 프로그램들이 제작되고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면, 전문 트레이너와 다수의 참가자들이 직접 단계별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몸을 가꾸기 위한 쌍방향적 참여가 능동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비만의 출연자들이 직접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체중을 줄이기 위한 미션의 경쟁과정을 통해 다이어트 성공 신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이와 같은, 다이어트 프로그램의 가속화 현상은 몸가꾸기의 사회문화적 담론을 형성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다시 말하면, 타자의 모습을 통해 자신을 동일시하려는 욕구는 우리사회의 답음을 시도하기 위한 정형화된 신체 이미지 표상의 획일적인 부분으로 이어지고 있다. 미디어에서 표출되고 있는 신체이미지의 동일화 과정은 인공적 표상으로 자극

되고, 행위적 표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몸을 통해 소통하고자 하는 대상과의 관계형성이 상징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 5. 결론

이상과 같이 살펴본 결과, 몸 가꾸기의 열풍의 가속화 현상은 몸을 하나의 기호로 소통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과도 같은 것이다. 외모를 중시하는 꽃미남에서부터 몸짱의 신드롬에 이르기까지 우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몸 가꾸기의 열풍은 마치 새로운 상품을 생산하는 자본주의의 상징과도 같은 믿음의 상징 체계를 구현하는 듯 하다.

인간 신체의 이미지, 즉 몸이 갖고 있는 사회성과 관련된 타자와의 소통을 이루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에서 비롯된 진실의 부재는 되짚어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몸에 대한 이항대립적인 소통의 구조는 우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외모지상주의의 고정관념을 해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Aumont Jacques, 김영호 역(2006), 『영화 속의 얼굴』, 마음산책, p.34.
- [2] 함 현(2009), “광고사진의 몸 이미지와 젠더에 대한 담론”, 영상기술연구 통권 11호, p.183
- [3] 윤태일(2004), “여성의 날씬한 몸에 관한 미디어 담론 분석”, 한국언론학보, 48권4호, PP.17~19.